

지 구 마 을

● 제 26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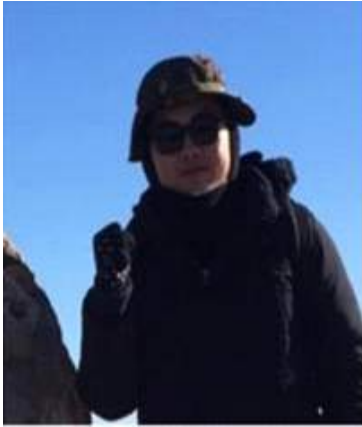
2020.09.21. 제주도 - 16학번 김준영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목차

1. 학생회 소개	4
2. 재학생의 말말말!	5
3. 재학생이 전하는 학교생활 꿀TIP	6
4. 졸업생 선배님과의 인터뷰	8
- 정희락 선배님	
- 오태림 선배님	
- 채은혜 선배님	
5. 지리데이 후기	12
6. 제주도 답사 보고서	14
- 18학번 윤여진	
- 16학번 이인철	

2021년 학과를 위해 일할 학생회를 소개합니다!



학생회장 17 강민구



부학생회장 19 박현빈



총무부장 17 김경현



총무차장 20 정예지



문화체육부장
18 남현모



문화체육차장
20 진승우



홍보부장 19 윤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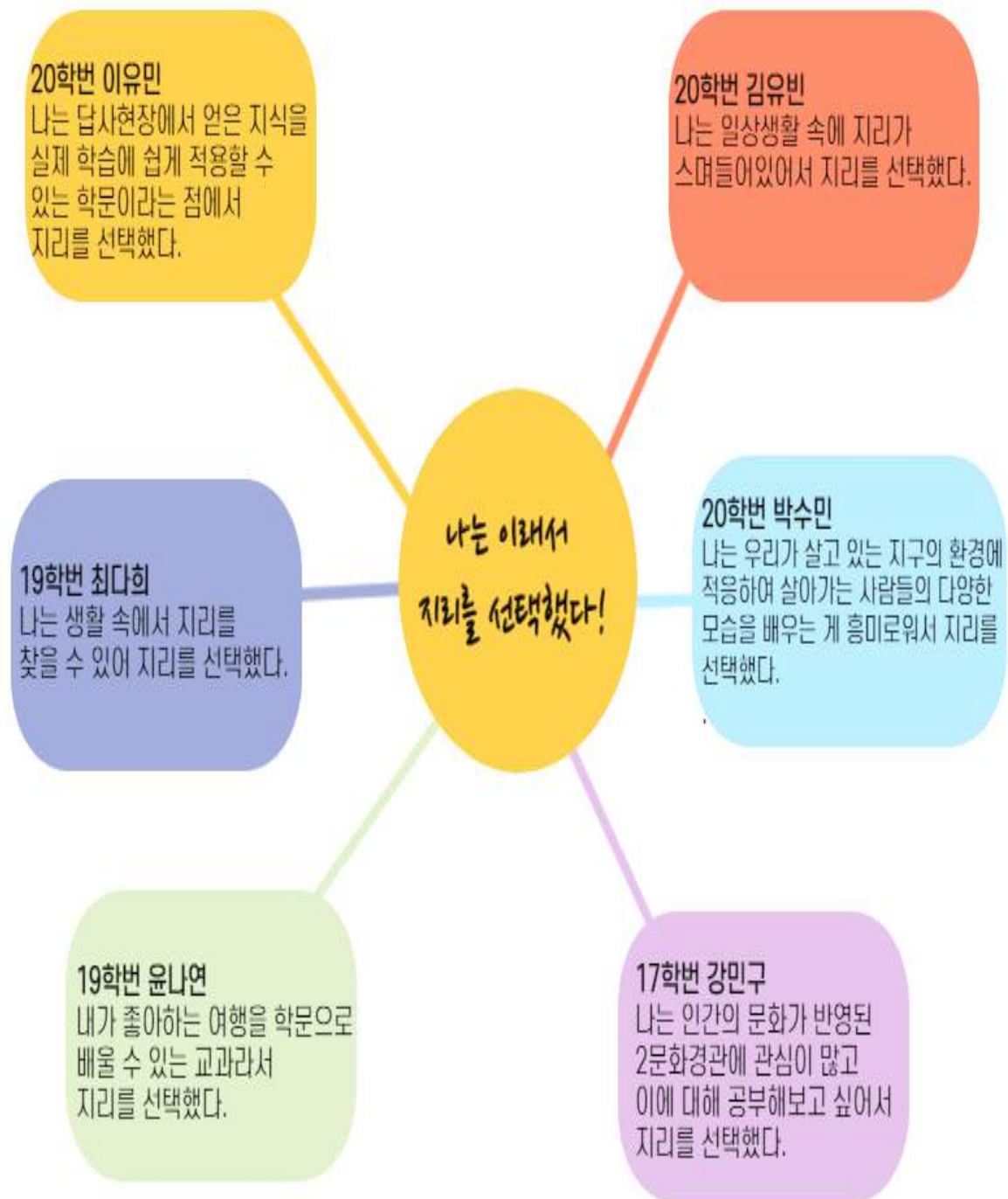


홍보차장 20 이하영



교육임용담당
19 최지수

재학생의 말말말 나는 이래서 지리를 선택했다!



재학생이 전하는 학교생활 꿀TIP!!

- 학교생활 편 -

17학번 강민구: 우리 과에는 총 네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영아 교수님, 오정준 교수님, 임석희 교수님, 손명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다들 학생들을 신경써주시고,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밖에 2018년까지 우리 과에서 강의를 하셨고 현재 정치지리를 강의하시는 최병두 명예교수님도 계십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분야는 인문지리로, 특히 문화지리와 도시지리, 경제지리를 좋아합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_^

아, 물론 다른 질문도 받습니다~^^

17학번 김경현: 학교에 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캠퍼스의 구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책임져줄 맛있는 밥집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교 앞 맛집 두 곳을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상당히 주관적이니 참고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일미 닭갈비'를 추천드리는데요! 많은 야채들과 닭고기가 듬뿍 들어간 닭갈비에 치즈까지 추가하면... 실패하려면 실패할 수가 없죠. 맵기 조절도 가능하고 다 먹고 볶음밥까지 먹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폭식'입니다! 공부하고 나면 다들 배가 많이 고프시죠? 열심히 공부한 당신을 위한 선물! 바로 고기 무한리필인데요, 좋은 고기의 질과 다양한 반찬들을 먹다보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주관적인 학교 앞 음식점 두 곳을 추천 드렸어요. 이걸 참고해서 입학 후에 여러분들만의 맛집 Best도 한번 선정해 보셨으면 하네요.

그럼 개강하고 봐요~

재학생이 전하는 학교생활 꿀TIP!!

-기숙사 편-

20학번 정예지: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숙사 신청을 해야겠죠? 기숙사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으니 에브리타임 정보게시판이나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점호와 외박입니다. 점호 미참여는 벌점 3점, 무단외박은 벌점 5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생들이 가장 많이 받은 벌점 중 하나로, 다음 학기 입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조심해서 다녀야겠죠?^^

또한 매년 많은 사생들이 소음, 소란으로 인해 민원을 넣는데, 방음이 되지 않는 기숙사 특성을 고려하여 갖은 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에브리타임에 본인의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죠?

다들 개강하면 봐요~

4. 졸업생 선배님과의 인터뷰

정희락 선배님 - 경기도 평택시 세교중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에 2013년도에 입학하여 2017년도에 졸업하고, 현재 경기도 평택시 세교중학교에서 3년 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희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졸업한 이후에도 지구마을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1.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우선 제가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리’라는 교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지리라는 교과목을 알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지리’라는 학문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지리라는 것은 인간이 써 내려가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지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자신의 경험이 가득 담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나도 교실에서 지리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지리의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2. 지리 교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지리 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의지를 다지는 일이라 생각해요. 사실 지리 교사를 희망하며 지리교육과에 왔지만 ‘과연 내가 지리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주저할 때가 많았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많이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고, 열정을 쏟는 만큼 확신이 생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임용 시험에서는 ‘운’이 중요할 수 있지만,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꼭 합격의 ‘운’이 반드시 함께할 거라 생각합니다.

3. 학교를 다니며 가장 좋았던 경험

지리교육과를 다니며 가장 좋았던 경험들은 답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답사는 지리교육과에 재학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답사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지리적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함께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추억할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 신입생들을 위한 팁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예비 교사인 여러분에게 지리교육과에서의 4년은 학생과 선생님의 중간 그 어딘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보세요. 저에게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과 임용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꼭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멋진 지리 교사가 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많이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림 선배님 - 청도군 지적직 공무원

1.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고등학교 시절 세계지리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대학에서 깊게 공부하고 싶었고, 지리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며 지리라는 학문에 빠져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지리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재학시절 도시지리에서 배운 도시공간구조, 지역개발론 수업을 들으며 지리학의 응용분야인 도시계획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대학생활과 공무원(도시계획직, 지적직) 시험공부를 병행하다보니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학문적 이론이 아닌 현장 설계를 배우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신입생들을 위한 팁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동아리 활동, 기업 연계형 실습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사진)

채은혜 선배님 -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연구원

1.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엄청난 의미와 포부를 가지고 지리교육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실망이겠지만, 제가 지리교육과를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후배님들은 어떤 이유로 지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지리 선생님처럼 훗날 한 사람의 진로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지리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직접적인 계기는 대학원 진학인 것 같아요! 대학원은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진학했지만 대학원 수업을 듣고,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지리학의 다양한 영역과 가능성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사가 아니라도 지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3.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사범대의 특성상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후배, 동기들이 많다보니 타 진로의 경우에는 채용정보나 취업준비를 혼자 해야 되다보니 그 과정이 외롭고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견이 맞는 학우들끼리 취업 스터디 등을 통해 활발한 정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4. 신입생들을 위한 팁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중에 쉽고 재미있는 지리 교양서적도 많고, 일상생활이나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지리학적 현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끔은 어렵고 딱딱한 전공서적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지리학의 재미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길 :)

지리데이1) 후기

19학번 박현빈, 윤나연, 최지수

이른 아침 출발한 지리데이 첫날은 사천의 선상지와 고성 상족암을 방문했습니다. 고성 덕명리 해안에서는 조별로 자를 이용하여 원마도를 측정했는데, 처음엔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같은 조를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활동 중에 물수제비를 던지고 해안가를 뛰며 논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활동 이후 다 같이 상족암(해식애, 파식대) 지형을 관찰하며 동기뿐만 아니라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걷고, 수다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남기는 등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첫 날 일정을 마친 후 강당 모여 답사평가회, 졸업생 특강, 정기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답사평가회는 2.3학년 선배들이 답사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발표하였고, 임용에 합격한 선배가 특강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중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학회장을 뽑는 등 교수님들과 모든 학년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 일정은 동피랑 방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나오니 맑은 햇빛 아래에서 본 숙소 뒤 해안 풍경이 정말 예뻐던 기억이 납니다. 맑은 바다를 구경한 후 도착한 동피랑은 과거에는 낙후된 마을로 재개발의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현재는 벽화마을로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곳으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동피랑의 벽화와 근처에 있는 중앙시장 등을 구경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만난 동기, 선배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지리데이란 지리교육과 모두가 답사를 가는 과 행사(학과답사) 중 하나입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직접 보고 체험할 뿐 아니라 선배님,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고성 사족암



2019년 11월 29일 고성 사족암



2019년 11월 29일 사천

제주도 답사 보고서

지리교육과 21833954

윤여진

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저는 마냥 책을 통해서만 보던 제주도의 여러 지형들과 장소에 대해 제가 직접 걷고, 보고, 만지면서 많은 것들을 새삼 다시금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적 지형뿐만 아니라 갈등과 같은 인문적 환경 또한 직접 보고 몸소 느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오름들이 존재하는데, 저도 제주도 답사에서 거의 1일 1오름이라고 할 정도로 셋째 날까지 매일 오름을 1개씩 오르며 오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화산 지형과 오름에 대해 강의해주기도 하셔서 이번 답사를 통해 저는 특히 오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답사 보고서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3박 4일 동안 오르며 제게 친숙해진 화산 지형인 오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오름은 바로 어승생악이었습니다. 어승생악은 화산 지형 중 단성 화산의 스킨리아 콘에 해당하는데, 둘째 날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강의에 의하면, 화산 지형은 크게 단성 화산과 복성 화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성 화산은 1번의 폭발로 생성된 화산을 말하며, 복성 화산은 1번 이상의 폭발로 생성된 화산을 말합니다.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단성 화산에 속하는데 어승생악 또한 단성 화산에 속합니다. 어승생악은 단성 화산 중에서도 스킨리아 콘으로 분류되는데, 제주도 오름의 대부분이 단성 화산의 스킨리아 콘에 속합니다. 어승생악의 ‘악’은 큰 산이라는 의미이며, ‘어승생’은 과거 임금이 타는 말이 태어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²⁾ 어승생악은 꼬마 한라산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별명에 걸맞게 어승생악 정상에서 저는 제주시 시가지를 한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 시가지를 한 눈에 바라보니 신제주와 구제주 또한 한 눈에 보여, 구제주에서 신제주로의 제주시 시가지 이동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2) 제주시청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한라산국립공원 내 어승생악 오름,
<https://blog.naver.com/wowjejusi/221861320825>, 2020. 03. 19.



사진 ①

어승생악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시 시가지



사진 ②

어승생악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 백록담

어승생악 정상에서는 제주시 시가지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백록담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갔을 때에도 마침 날이 맑아 맨눈으로도 한라산의 백록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과 망원경을 통해 백록담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답사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지 못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외에도 어승생악 정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어승생악 정상에 있는 군사 시설입니다.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로, 일제의 최후 저항 거점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굴진지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었는데, 동굴진지 안에 들어가 보니 제주시가 한 눈에 다 보였습니다.



사진 ③ 어승 정상의 일제 동굴진지 벙커#1

둘째 날도 오름을 오르며 둘째 날의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 오른 오름은 아부오름이었는데, 아부오름 또한 스코리아 콘입니다. 아부오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에는 ‘아버지 오름’이라는 설과 ‘앞 오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앞 오름’이라는 설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부오름은 그렇게 높지 않아 전날 올랐던 어승생악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오를 수 있었으며, 원형 분화구이기에 둘레 길을 걸으며 산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레 길을 걸을 때에는 주위를 잘 살피며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심코 둘레 길을 따라 둥글게 걷다가 내려오는 길을 놓쳐 교수님과 함께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선선하고 아부오름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진 ④ 아부오름의 원형 분화구 모습 (왼쪽 들어가 있는 곳이 분화구)

제가 방문한 날에도 아부오름에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며, 사진가분들을 섭외하여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금 더 찾아보니 근처에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하여 아부오름으로 피크닉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아부오름 또한 어승생악과 같은 스코리아 콘이라고 하였는데, 아부오름의 화구 안 사면, 중간 부분의 일부분은 자연 침식되어 스코리아 층의 노두 단면이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³⁾ 아래 분화구까지 내려가며 중간 부분의 스코리아 층의 노두단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있었고 아부오름의 상당 부분이 사유지화 되어있어 분화구 밑까지 내려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3) 아부오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5936&cid=40942&categoryId=31931>

셋째 날에는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물영아리 오름을 올랐습니다. 물영아리 오름 또한 마찬가지로 스코리아 콘이지만, 안식각이 약 30° 정도로 가파르고 굉장한 급경사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답사 중 가장 오르기 힘들었던 오름이었습니다. 물영아리 오름을 오르기 전 날,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내일 물영아리 오름은 피곤할테니 꼭 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름을 오른지 5분도 안되어서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 남사면이 더 경사가 급했습니다. 물영아리 오름이라는 명칭은 ‘물이 고여있는 영아리’라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물이 고여있는 신령스러운 오름이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⁴⁾ 물이 마르지 않는 산정 화구호 오름 중 하나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은 우리나라 첫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습지 보호를 위해 물영아리 오름은 비공개 지역이 되었으며 관리용으로 최단 거리에 목돌(계단길)을 설치했습니다. 공개한 뒤, 이 계단길이 가파르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 최근 걷기 편하게 동쪽에 능선을 따라 새로운 탐방로(능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⑤ 물영아리 오름 밑 산담

4)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제주 람사르습지 물영아리오름 탐방.
<https://blog.naver.com/happyjeju/222085436850>, 2020. 09. 10.

본격적으로 물영아리 오름의 계단길이 시작되기 전, 저는 물영아리 오름 밑에서 산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담은 무덤을 둘러싼 돌담으로 흔히 네모난 모양을 씁니다. 산담은 밭 한가운데 혹은 밭 주변에서 잘 보이는데 오름 밑에서 발견하니 신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잠시나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산담을 지나 계단길을 올라 물영아리 오름 정상에 올라가면 화구호 습지가 보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가기 전 주에 비가 많이 내려, 화구호 습지에 물이 많이 차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진 ⑥ 물영아리 오름 화구호 습지

물영아리 오름 화구호 습지에는 물을 마시러 온 노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물영아리 오름의 자연생태 보존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영아리 오름에 간 날, 날씨가 좋지 않아 흐렸는데 이마저도 몽환적이고 분위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화창한 날에 물영아리 오름에 오르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셋째 날에는 물영아리 오름 외에도 다른 분화구를 찾았는데 바로 하논입니다. 하논은 앞서 봐왔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이중 화산으로, 하이드로 볼케이노의 마르형 분화구 안에 소형의 스킨리아콘이 출현한 경우입니다.⁵⁾ 하이드로 볼케이노와 스킨리아 콘 둘 다 단성 화산이지만, 하이드로 볼케이노는 스킨리아 콘과 달리 마그마의 분출 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물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⁶⁾

5) 이중화산, 「한국의 자연지리」, 김태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6) 하이드로 볼케이노, 「한국의 자연지리」, 김태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사진 ⑦ 위에서 바라본 하논 분화구



사진 ⑧ 하논의 논



사진 ⑨ 안 스킨아 콘

하논은 큰 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렇게 큰 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육지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논을 보고 큰 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하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제주도는 자연 환경 특성 상 벼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논도 제주도에서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도 답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산 지형인 오름들에 대한 기억이 가장 잊혀지지 않는데, 오름이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기도 하지만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님께 강의도 듣고 매일 오전에 힘들게 직접 오르며 배우다 보니 다른 지형과 장소, 공간들에 비해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답사를 하며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하는데, 이 아쉬운 부분들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왔을 때 또 직접 걷고 몸소 체험하며 아쉬운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답사 보고서

21637118 이인철

생활지리

사실 제주도에 발을 디딘 이후 ‘여기가 제주도이다!’라고 느끼게 해준 경관은 비행기 너머 보이는 도시경관이나 오름 사이사이 틈 없이 쌓여있는 돌담보다는 찻날 숙소에서 도착해 TV에서 뉴스를 시청했을 때였다. JIBS라는 제주도의 지역 방송국은 다른 지방도시에 있는 뉴스보도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 수도권과는 독자적인 소식을 전해준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당시 방송에서는 지방회의의 조례에 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 중 주요 이슈는 ‘비상 감귤 수확에 관한 드론 감시 확대 방안’과 ‘꽃굴과 청귤 용어 혼용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 이 두 이슈에 대해 제주도민이 아니었던 나로선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뉴스보도 당시 이슈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답사 이후 조사를 통해서야 이러한 이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제주감귤 비상품 단속이 강화된다.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암채 상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강제 후숙시켜 유통시키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드론을 이용해 하예동에 위치한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수확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하고 수확한 감귤 1톤을 압수해 폐기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감귤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극조생 미숙과 수확 확인용 드론 장비를 기존 1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21일부터 추석 전날인 30일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2020. 09. 21.>

위 기사에서 말하는 제주감귤 비상품이란, 제주도에서는 제주감귤조례에 따라 상품성이 없는 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되고 수확이 금지된다. 답사 당시 숙소에서 뉴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품을 평상시와 대비되는 시기에 쓰이는 품목으로 생각하고 이를 특정 사람이 절도를 하였다고 맥락을 잘못 짚었다. 이는 드론이 ‘수확’하는 것을 검거했다는 보도에서 기인했는데 자신의 농장이라 할지라도 감귤의 수확자체가 금지된다는 배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접하여 흥미로웠던 점은 제주도에는 감귤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감귤을 관리하는 공공부처가 따로 있으며 감귤의 유통은 자율적인 시장이 아닌 지방 자치에 의해 관리되는 면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였다. 이는 다른 지역의 다른 특산품보다도 제주도에서 감귤이 지리적으로 가지는 특산품으로서 가치가 더욱 부각되기에 형성된 경관인 듯하다. 일례로 나의 고향 광양의 특산품은 매실이지만 20년 동안 뉴스에서 매실과 관련된 조례를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다.

풋귤은 당초 ‘미숙과’로 규정됐으나, 최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2016년 말부터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해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귤의 경우 다른 감귤과는 달리 꽃이 핀 이듬해 2월까지 과피(果皮)가 푸르며 3~4월쯤 황색으로 익는 재래종이다. 청귤이라는 재래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조례제정 당시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풋귤’로 명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모 대기업 편의점을 비롯해, 일부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풋귤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명에 ‘청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2020. 09. 21.>

풋귤과 청귤의 정의는 기사에 나온 바와 같다. 나는 귤이라 하면 오렌지나 한라봉정도로나 구분하지 귤에 대한 세세한 용어는 잘 몰랐다. 또한 이러한 무지는 뉴스에 보도된 대기업에도 해당된다. 아마 그 대기업 임원들 중에 제주도 사람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리는 눈에 대한 단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스코틀랜드라고 한다. 그리고 귤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마 제주도 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고향 광양은 매실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은 지역일까?

이밖에도 답사기간 동안 뉴스에서는 4.3 특별법에 대한 관심, 제주지역 지역화폐 ‘탐나는 전’, 통계 결과 제주는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지역 등 소위 육지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보도들을 시청하게 되었다.

답사 중 전통시장만 둘러보고 마트에 가보지 못해서 상품 물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물가가 높은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버스를 타며 간간히 보이는 주요소 기름 값을 보면 확실히 비쌌다. 비싼 것만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구보다 100원은 더 비싼 듯 했다. 이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정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어승생. 바오젠거리(시내) -



제주도에 도착하고
척 답사지역인 어승생
에서 제주도 경관을
찍은 사진이다. 이곳
에서 제주도 크게 방
위별로 구분되는 경고
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정준 교수님
의 설명과 더불어 남
부와 북부 그리고 동

부와 서부의 경제 경관의 차이, 지역 간의 갈등, 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난 변화
들에 대한 파악할 수 있었다. 짧은 강의를 듣고 물론 그 자체의 지식도 중요하
지만 문화지리 및 지역지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관찰할 것인가에 대
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지식
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정상 가장자리에 있
는 벙커 입구를 찍은
사진이다. 이곳은 해
발고도가 높은 전투가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올랐는데, 임
석회 교수님이 말씀하
시길 이곳 제주도는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최후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었으며 만약 그랬다면 제주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슬픔과 아픔
의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다. 이 벙커 외부 모습
은 그와 같은 ‘만약 그랬다면’의 생각거리로 녹슬어있다.

바오젠 거리의 한 식당 사진 간판이다. 특이한 점은 이 사진의 간판은 일반
식당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이며 대부분의 간
판과는 달리 중국어가 쓰여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인을 호객하기 위한 용도



인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듯 한국 드라마 연예인들의 사진 또한 입구에 놓여있었다.

코로나의 영향인지 거리에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운 텅 빈 거리였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중국 관광객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곳의 경제경관은 언제까지 얼어붙게 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 아부오름, 종달리 마을 -



왼쪽의 사진은 아부오름의 분화구 모습이다. 현장 안내판에도 나와 있고 오정준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이 오름의 지명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보았을 때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믿음직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지칭한 것과 앞 오름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와전되어 아부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설이다.

중양의 삼나무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 다음 날 답사와 동행한 제주대학교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삼나무는 본래 우리나라 토종 목은 아니고 일본에서도 도입되었고 매우 빠르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 하셨다. 저 만한 나무의 세월을 여쭙보았는데 단지 50~60년이면 저만한 두께와 높이를 지닌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서 토종목이 아닌 삼나무림 보존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다고 한다.

제주도 끝에 있는
종달리 마을은 토착민
과 이주민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좋은 사례를 제시해준
다. 옆의 사진은 흙
당근을 재배하는 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논을 비롯한 쌀 생
산량이 적은 제주도에



서 흙 당근의 생산량은 전국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과거 소금을 채취하는 땅으로서 역할도 하였는데 종달리라는 과거 제주도 내 최대 소금 생산지였다. 현재의 밭의 모습은 대부분 간척지로서 우리 나라에서 간척지는 서해안이 대부분이고 넓게 쳐줘야 남해안뿐이라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제주도에서도 간척이 이루어 질 수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해보았다.

- 물영아리 오름. 알뜨르 비행장 -



이 두 사진은 물영아리 오름 정상부 사진으로 왼쪽의 사진은 분화구의 중앙부를 오른편의 사진은 가장자리의 모습이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식생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주대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습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권이 점점 육지 생활권으로 천이 과정이 나타나며

영구히 지속되는 습지가 아닌 추후에는 사라지는 오름 습지로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하셨다.

부연설명에 따르면 연구 결과 육지 생물권이 천이되는 속도는 2,500년에 7M이라 하셨는데 이곳의 둘레가 70M정도 된다는 안내판에 의하면 이곳이 완전 매립되는 시기는 25,000sus 이후가 아닐까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보았다.

다음 사진은 답사 마지막 장소인 알뜨르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불어 같은 낮선 이름과 달리 알뜨르는 ‘아래 별판’이란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이다. 이곳의 첫 인상은 지명 그대로 비행장 그



자체보다 드넓은 별판이 눈에 띄었다. 넓은 별판 사이사이 위에서보면 마치 왕릉처럼 보일 것 같은 격납고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이러한 격납고 역시 답사 첫 날 어승생에서 마주했던 벙커와 같은 맥락에서 군사훈력 시설이나 자칫 전쟁터로 휘말려 슬픔과 아픔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드넓은 무와 비트 밭에 숨은 넓은 콘크리트들이 미묘한 느낌을 주었다.

지구마을이란?

마지막으로! 지구마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신입생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구마을은 지리교육과 학생회가 매년 발행하는 학과 소식지로,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2021년 지리교육과에서 열심히 배우고 과 활동을 하면서 이 소식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